

# “가해자들, 지금이라도 합당한 처벌 받아야”

최숙현 부친, “김규봉 감독 등 가해자들 여전히 사과도 없어” 국회 청문회 앞두고 심정 전해



“김도환 선수를 제외한 가해자들은 여전히 연락도, 사과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

의 아버지 최영희씨가 다음 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경주시청 소속 철인3종경기 선수로 활동한 최 선수는 지도자와 선배의 폭행과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달 26일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 김규봉 감독,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주장 장윤정 선수, 김도환 선수에 대한 주거지 압수 수색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에서는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최숙현법’이 발의됐고, 시민들 역시 강한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는다. 김도환 선수만이 자필 편지 등을 통해 유족에게 사과했을 뿐이다.

최영희씨는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가해자들의 연락이나 사과 없었다.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 리 없다”라고 했다.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김 감독과 장 선수, 10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김 선수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는 반응이었다.

그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라며 “하지만 핸드폰과 통장 등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고, 숙현이 동료 등의 추가 고소도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감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사죄 후에도 재심 신청에 동참한 김도환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한 사과는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10년 자격 정지는 과하니 처벌을 적게 해달라는 뜻으로 재심 신청에 나섰을 것이다”고 짚었다.

또 “가족들은 김도환 선수가 성실히 수사에

입하고 처벌 받은 후에야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진실된 증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증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겠나. 사람이려면 거기선 바른말을 할 것이다”며 “솔직히 또 거짓말로 일관할 것 같다. 그래도 상관없다. 많은 증인과 녹취 등 증거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김 감독 등이 더이상 책임을 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최씨는 “사람이 죽었는데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 한다. 그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러나 아이를 그렇게 때리고 괴롭혔을 것”이라며 “숙현이는 괴롭힘에 지쳐 운동을 잠시 쉬었다. 마음을 다잡고 복귀한 후에도 달라진 게 없는 지도자와 선배의 태도에 분노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회피해선 안 된다. 합당한 처벌을 받은 후 숙현이와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다.

/뉴시스



‘주먹 인사’

16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솔라고CC에서 열린 KPGA 오픈 with 솔라고 CC 1라운드 1번홀 티그라운드에서 이창우와 박상현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KPGA 제공)

## “무관중 올림픽 원하는 그림 아냐”

바흐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안전한 올림픽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IOC는 16일(한국시간) 온라인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흐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는 “무관중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새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 7월 개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1년 후의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IOC는 재정난에 직면한 종목별 국제연맹(IF)과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1억달러(한화 약 1201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2022년 세계값의 수도 다카르에서 열리는 하계유스올림픽을 2026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밝혔다.

/뉴시스

## 하대성, K리그 해설위원으로 복귀



올해 초 그라운드를 떠난 하대성이 프로축구 K리그 해설위원으로 돌아온다.

프로축구연맹은 16일 “FC서울 출신 하대성위원을 K리그 중계제작팀의 해설위원으로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2004년 울산 현대를 통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하대성은 대구FC, 전북 현대를 거쳐 2010년부터 서울 유니폼을 입었다.

데얀, 볼리나 등의 공격진을 묵묵히 받쳐주는 역할을 소화한 하대성은 서울이 2010년과 2012년 우승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팬들은 ‘상암의 왕’이라는 별명으로 애정을 쏟았다.

2014년 중국 슈퍼리그에 진출한 그는 일본 무대까지 두루 경험한 후, 2017년 친정팀 서울에 돌아왔으나 부상으로 올해 초 은퇴를 결정했다.

/뉴시스

## 태권도장 관장 저금리 대출 지원

국기원은 우리은행과 손잡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태권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장들을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기원은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대출 최저금리를 기존 연 3.19%에서 태권도장 관장으로 대상을 한정해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연 2.73%(13일 기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태권도장을 소유한 관장이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리는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뉴시스

## 카타르월드컵, 2022년 11월 21일 ‘광파르’

결승전 12월18일... 조별리그 하루 4경기 열려

도시 간 거리가 짧아 팬들이 많은 경기 관전 예상

국제축구연맹(FIFA) 2022년 카타르월드컵이 2022년 11월21일(이하 현지시간) 개막한다. 결승전은 12월18일에 열린다.

FIFA는 15일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열리는 카타르월드컵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개막전은 6만명을 수용하는 알코르의 알베이 트 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 이후 12월2일까지 12일간 대회가 진행된다.

조별리그 경기 시작 시각은 오후 1시, 4시, 7시, 10시로 하루 4경기가 열린다. 한국 시대로는 오후 7시, 10시, 다음날 새벽 1시, 4시에 킥오프한다.

15일간 진행됐던 2018년 러시아월드컵은 하

루 3경기가 열렸었다.

우승을 겨루는 결승전을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12월18일 치러진다.

카타르월드컵은 개최 도시 간 거리가 짧아 팬들이 가능한 많은 경기를 관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FA는 “카타르월드컵에선 비행기나 기차를 타지 않아도 된다. 팬들에겐 이상적인 월드컵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